



주 제:	“머무름”	“부활 제 5 주일”	2009년 5월 10일
복음 묵상:	[요한 15,1-8]	[사도 4,8-12]	[1 요한 3,1-2]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을 제 때에 주는 것도 아니고, 거름을 적당히 주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우선적인 조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무로부터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얻어낼 수 있다. 그게 기본이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조건들이다.

그런데 우린 그걸 쉽사리 잊어버린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무시해 버린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조건들만 생각한다. 온도를 생각하고, 수분을 생각하고, 영양분을 생각한다. 그게 열매를 맺기 위한 더 우선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여긴 그 첫 번째 조건을 뇌리에서 지워버린다. 그러다가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보면서, 그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실이 실은 당연하지 않음을 새삼스레 발견한다. 그제야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우친다.

그 당연하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을 오늘 복음에서는 포도나무의 그림으로 쉽게 풀어주신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 가르쳐 주신다. 그 가르침에 진리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 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다. 맞다. 신앙은 본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느님께 여는 수동적 행위이며, 그 분을 붙잡고, 그 분께 매달리며, 그 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행위이다. 그렇다고 이 머무름이 그저 수동적이지는 않다. 가지는 나무에 그저 붙어있지만 앓기 때문이다.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물을 빨아들이도록 뿌리를 재촉한다. 그게 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가지의 이 행위는 나무에 붙어 있다는 면에서는 그저 수동적인 행위이지만, 그 내용은 엄청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행위이다. 머물러 있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은 단순히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주고받음의 유기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분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게 진정한 머무름이다. 그렇게 머물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에 대해서는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잘 나와 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 5, 21~22).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부산교구 홍경완 신부님 강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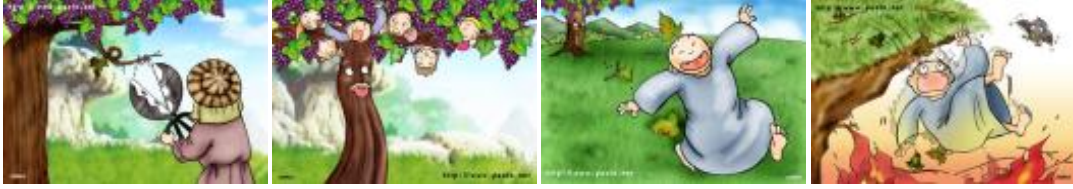
가족 동점 및 기도 요청

- **접친 장례 예절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유가족뿐 아니라 많은 문상객들로 부터 성가대가 계속적으로 봉사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능한 대로 장례 예절에는 많은 단원들이 참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 세실리아 자매님, 과 허 수산나 자매님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성지 순례중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위독하시어 급히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간이 나빠 지난 9년동안 어려운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고생하시었으나 근간에 직접 주사로 투약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지시로 투약을 시작하였으나 뒤따르는 부작용으로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박소피아 모친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가대 가족으로서 좀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 하셨듯이 까리따스 자매님도 훌훌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은 힘을 모아 기도중에 주님께 자비를 청해 주십시오**
- **조성숙 리따자매님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와 기도 요청

고 민병엽 마르코 형제님의 유가족들께서 성가대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촛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고인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음 [요한 15,1-8]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 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 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1분 명상

♡갈릴레아 호수에서♡

이은순 아녜스



아득히 먼 곳으로 부터
물결쳐 오는 은빛의 호수는
온 우주를 품은듯하고
부르롭게 스티는 미풍은
당신의 평화로 다가 옵니다.

조금은 숨가쁜 순례의 길
호수의 은빛 물결은 마치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고 하시는
당신의 손짓이 되어 망부석이 된 듯
그냥 그 자리에서 있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온갖 짐 나를 내려놓고
당신만 믿고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사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2 테살 3,5)."

생활의 지혜

● **불펜자국은 물파스로 지운다**

불펜자국 위에 물파스를 가볍게 두드리면 바로 지워지고, 또 알콜 적신 거즈로 얼룩진 부분을 두드리듯 닦아내도 말끔하게 지워진다.

● **다리미 얼룩과 김치얼룩은 양파물로**

다리미질을 하다 눌러붙어 누런 얼룩이 생기면 약국에서 구입한 과산화수소를 더운 물에 30% 정도 비율로 섞은 액체로 닦는다.

과산화수소가 없으면 대용으로 양파를 잘라 얼룩 부위를 문지른 뒤 찬물에 흔들어 씻으면 말끔히 지워진다. 김치국물도 양파즙으로 닦고 24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진다.